

내복 같은 사진 한 장

“허리 펴고, 카메라 보고, 스마일!”

지난 20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지구촌노동자 인권센터 한국어학교 수료식에 참석한 2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 학생들은 졸업가운에 사각모를 쓰고 사진촬영에 임했다.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 써 보는 사각모를 어찌할 줄 몰라 이색해하면서도 마냥 좋아했다. 옷대무시를 고쳐주고 자세를 잡아주는 우리 사진봉사팀에게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감사합니다”하고 수줍게 웃기도 했다.

수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의 손에는 방한용 내복이 선물로 들려 있었다. ‘아마도 우리가 찍은 사진이 그들에게는 고향땅에 인부를 전하거나 이국살이에 용기를 주는, 마치 추위를 막아내는 내복 같은 사진이 되겠지.’ 가슴 한편이 따뜻해왔다.

올 한 해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취미로 시작한 사진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법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을 얻은 것이다. 그저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동참시킬 수 있는 ‘큰 사랑’을 경험했다.

사람은 성숙해질수록 세상과 자연의 이치에 경외심을 갖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본다고 한다. 혼자서는 결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음을 깨닫는 순간 겸허해진다. 세상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처럼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시키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또 있을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09년,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큰 사랑’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 김준수 시인의 시구(詩句)처럼 우리들은 모두 서로에게 무엇이 되고 싶어하므로



하민희·와우에이지 대표

'소머리국밥' 작가들이 반가운 이유

지인 한 분이 재미있는 전사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 양평으로 다녀왔습니다. 작가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인데 이름이 '소머리국밥' 이란다. 토속적인 시골마을 어귀에 커다란 노란 건판을 단 30여평기량의 공간에는 사진·회화·설치미술·조각·도자기 작품이 소박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기획을 맡은 조각가 선생님이 관람객에게 열심히 작품설명을 했다. 설명을 듣는 관람객은 참마구니를 든 걸로 보아 인

근 주민임이 틀림없었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함아래' 은 현지 작가들로 구성된 문화활동단체다. 환경과 예술을 최우로 1998년부터 강원도 철원 파랑 지역에서 문화환경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문화 소외 지역에 예술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소머리국밥집을 인수해 갤러리로 개관했다. 이번 기획전의 관대수의 일부도 환경영화 제작 지원에 쓰인다. 몇 해 전부터 경제적으로 대형 미

술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어떤면 다 음택고 문화예술 성장에 나선 듯어 보인다. 하지만 양적인 편장에 비해 질적인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는 자성과 함께 경기침체로 인해 성장여 명추지는 있을까 하는 우려도 풀린다. 그래서 다양한 예술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호흡하며 예술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 주는 소머리국밥 작가들이 더 반가웠

나 보다.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적응 하면서 자생력을 키우는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그 노력이 박수받을 때 진정한 문화선진국이 되는 게 아닐까? 독특한 이름의 갤러리와 그곳에서 만난 작가들을 피플리언 함박웃음이 난다. 세상은 분명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만희·와우에이지 대표



카메라에서만 보이는 풍경

평생 몰입할 수 있는 놀거리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친구와 함께할 수 있으면 더 행복하고 세상에 이로운 놀이엔 더할 나위 없다.

내게 있어 사진이 그렇다. 심신이 힘들어진다면 카메라를 들고 나선다. 한두 시간 사각 프레임 너머로 세상을 보다 보면 온몸이 충전된다. 웃음이 돌아오고 마음이 넉넉해진다.

3년 이상 함께 사진을 찍어 온 기업체 CEO 한 분이 계신다.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을 모아 노인복지시설에서 영정 사진을 찍어 드렸는데 촬영 도중에 할머니 한 분께서 아들 생각이 난다며 끝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 돌아오며 몇 번을 뒤돌아보던 그 CEO께 요즘 꿈이 하나 생겼다. 포토스카우트 창단이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모여 소외된 이웃이나 어린이, 신생 NGO 단체의 활동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사회에 알리는 사진 봉사단체를 만드는 일이다. 보이스카우트처럼 잘 정비되고 준비되었다는 뜻으로 포토스카우트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사진을 찍는 것이 곧 마음과 감정의 소통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아닐까?

어쩌면 세상은 따뜻한 관심의 눈이라는 작은 파동 하나가 바꾸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평생 사진을 찍을 생각이다. 곱게 차린 할머니, 시장의 국수 한 그릇, 분주한 아침, 퇴근길의 저녁 하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사진을 찍다 보면 예뻐 보려 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살면서 맛보는 행복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발견된다. 눈이 따뜻해지고 관심을 잃지 않게 된다. 사진의 매력이다. 허민희·와우에이지 대표



운명을 바꿀 3가지 방법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풍수지리이고 둘째는 독서, 셋째는 자선이다. 풍수지리는 일을 도모함에 있어 환경을 살펴보고 가능한 나쁜 것은 피하고 유리한 쪽에서 진행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독서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니 둘 다 운명을 바꾸는 그럴 듯한 방법이다. 그런데 자선은 어떤 의미에서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걸까?

내가 아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맨 한 분은 세계 재난지역 어린이를 1:1 결연으로 후원하는 구호단체의 후원자이다. 배송을 하러 행사장에 갔다가 구호현장을 찍은 사진전을 보고 그 자리에서 후원자로 등록하셨다. 막내를 대학에 입학시키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새삼 바다 건너 공부시킬 아이들이 생겼다는데 흐뭇해하신다.

그분은 전보다 훨씬 더 건강을 챙기고 안전운행에도 신경 쓴다. 자신이 무사해야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다며 마치 십여년 전 젊은 아

빠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한다. 그분은 집을 나갈 때 후원 어린이의 사진을 꼭 보고 나온다고 한다.

이쩌면 자선이란 남을 살피는 일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살피는 일이 아닐까?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모양이다.

이제 12월이다. 거리엔 구세군 종소리가 울리고 하루선녀 자선행사가 열릴 것이다. 운명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 내년에는 새로운 운명으로 행복해진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 해를 보내는 나의 작은 바람이다. 하민희·와우에이지 대표



※12월 '일사일언'은 하민희씨를 비롯해 장기오 전 KBS 대(大)PD, 이은태 극단 사키(四季) 프로듀서, 소설가 김연경씨가 번갈아 집필합니다.

성스러움과 속됨이 공존하는 '경계인의 도시'

바라나시, 안테바신의 도시

박종인 반주영 최영규 하인희 | 포토북 | 1만5000원



겐지스가 흐르는 인도 바라나시에서는 만물이 완전연소한다. 금방 내 발에 입을 맞추며 자비로운 미소를 던지던 성자. 그

에게 미소로 화답하면 성자는 간 곳 없고 늙은 거지 하나가 흰 이불 드러내며 손을 내민다. 다음 날 동불넋에 그를 또 만나는데, 그는 너무나도 경건한 모습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강물 위로는 달 탄 시체가 재와 함께 흘러가고 사람들은 그 물을 떠 치를 달인다. 화학적으로는 불결하기 짝이 없는 겐지스가 순식간에 고도로 정화된 신들의 발

자취로 변신해버린다.

그리하여 바라나시를 찾는 이방인들은 그 완전연소의 미학에 넋을 잃게 된다. 우선 기대했던 경건함과 신비함 대신 악다구니가 설채대는 모습에 경악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그 진흙탕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믿음에 감동을 느끼게 된다. 일종의 종교적인 경험이다.

그 극단의 도시 바라나시를 중년 사진가 네명이 다녀와 책을 냈다. 닷새 동안 도시 곳곳을 누비며 찍은 사진들과 관조적인 아포리즘을 모은 사진집이다. "어느 세계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는 이, 결코 누구라고 정의내리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이곳에서 만났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나시를 '안테바신(antevasin)의 도시'라고 했다. 산스크리트어로 '경계에 사는 자'라는 뜻이다.

정교하고 오랜 훈련을 거쳤음이 분명한 사진들이 책 앞표지에서 뒤표지까지 가득하다. 이 책을 보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 여간해서는 사진 찍히길 거부하는 바라나시 시민들의 삼라만상이 예쁘게 찍혀 있다. 인도에 해박한 수필가 류시화, 인물사진가 조세현이 이들의 여정에 동행했으나, 이들의 촬영 대상 선정과 글 작업에 두 사람의 조언이 있었음은 불분가지다. 독자가 경계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예쁜 사진'과 '잡연'으로 포장된 바라나시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뒷공복에는 세상 어디에나 다 있는 험잡꾼과 날강도들이 흘러넘치고, 뉴델리 공항에서는 "인도, 이런 줄 몰랐다"며 울어대는 배낭족들 여럿 보았다. 인도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한 교범으로 삼되 그 어면에 대한 공부는 독자 몫이다.

박종인 기자 seno@chosun.com

우리가 사는 이유

‘산다는 게 뭘까?’ 해를 넘길 즈음이면 꼭 한 번씩 자문하게 된다. 삼십대 중반에는 하늘이 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가라 여겼고 불혹에는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번 성탄절 아침, 나는 잔디네 집에서 또 다른 답을 얻었다. 잔디네 집은 8명의 근육디스트로피 장애인 청소년들이 함께 사는 생활공동체다. 근육이 약해져 점점 쇠약해지고 걸국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져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 연필을 잡기조차 힘겨운 상황에서 한 친구가 낸 시집이 인연을 맺어 줬. 최근엔 가까운 사진작가 한 분이 다큐멘터리 작업 중이다.

성탄예배 한 시간 전부터 준비에 분주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들이라 입일이 씻겨주고 입혀주어야 했다. 급한 마음에 덤식 적퍼를 입혀주는 내게 “처음치고는 잘하셨어요. 소대만 좀 더 빼주세요.” 해맑게 웃었다. 씻고 옷 입고 휠체어 타고 집 밖으로 나서는 데 꼬박 한 시간. 차가운 바람에도 그들은 나들이를 즐거워했다. 휠체어에 앉은 채 혹은 그조차 어려운 냐은 누워서 열심히 예배를 봤다. 보는 사람의 안타까움이 무색할 정도로 평온하고 밝은 그들. 자신에게 찾아온 불지병을 원망하고 짜증스러워하지 않는 그들. 손님을 반가워하고 사진 찍어주는 걸 좋아하는 그들을 더이상 아프게 바라보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편안하게 웃어주고 장갑을 끼워주고 목도리를 매줘야 한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여전히 꿈이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산다는 건 희망을 발견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문득 희망이 관도라 상자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민희·와우에이지 대표

